

종합편성채널 저널리즘의 비판적 재조명

시사토크쇼 정치 매개 엘리트들의 텔레비전 정치*

이영주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BK연구교수**

정치적 산물로서 출범한 지 5년을 넘어선 종합편성채널의 영향력과 방송 영역에서의 지위가 상승하고 있다. 종편의 안정화는 저널리즘의 물량 공세에 기초한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쏟아 내는 뉴스와 시사 토론 프로그램들이 '종편 타임대'라 불리는 오후 시간대를 점유한다. 시사토크쇼는 종편이 만들어 낸 대표적인 프로그램 형식이자 상품으로 독특한 종편 스타일 저널리즘을 이끌고 있다. 시사토크쇼의 주인공은 평론과 토론을 위해 모인 출연자들이다. 이 연구는 이들을 정치 매개 엘리트라는 개념적 위치화와 함께 TV조선, 채널A, MBN, JTBC의 대표적인 시사토크쇼에서 이들이 벌이는 텔레비전 정치의 풍경들을 살펴본다. 이 연구는 종편의 시청률을 상승시키고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시사토크쇼에서 정치 매개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편향성과 감정을 과감하게 드러내고 독특한 규정과 서술적 발화들을 통해 특정 대상들을 형상화하는 텔레비전 정치의 효과들을 읽어 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출연자로 불리는 정치 매개 엘리트들은 주로 극우, 보수, 중도보수적 정치 성향들을 가지며,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 집단과 밀착된 관계를 형성한다. 정치 매개 엘리트들은 종편 시사토크쇼에서 수행하는 텔레비전 정치를 통해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산을 확보하면서 정치 집단과 정치적 교환 혹은 거래 관계를 형성한다. 이 같은 정치적 동원, 교환, 거래의 관계 속에 종편의 시사토크쇼가 위치하며, 시사토크쇼는 정치적 전장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 연구는 강조한다.

KEYWORDS 종편, 시사토크쇼, 정치 매개 엘리트, 텔레비전 정치

* 이 논문은 2016년 한국연구재단 BK21플러스사업(과제번호 : 21B20130011127)을 지원받아 작성되었음.

** ubergang@skku.edu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텔레비전 방송에서 가장 뜨거운 경쟁과 충돌의 영역은 ‘정치’ 관련 프로그램일 것이다. 현대 사회의 모든 것들이 ‘정치적인’ 차원과 무관할 수 없으며, 따라서 텔레비전이 ‘무엇에 대하여’, ‘누구의 입을 통해’, ‘어떻게 말하는가’ 혹은 ‘말하지 않는가’가 그 자체로 또 다른 정치적 행위가 된다. 즉, 텔레비전은 정치를 매개하지만 동시에 정치를 수행하는 것이다. 동시에 텔레비전은 정치적 편향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텔레비전을 포함한 모든 미디어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

한국 사회에서 미디어가 여론이나 사람들의 정치적 의식 및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미디어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신문과 지상파 방송의 뒤를 이어 최근 4~5년 동안 종합편성채널(이하 ‘중편’)이 논란의 중심부로 부상했다. 현재 중편은 보수 우파 정치인과 정당,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옹호하고 보호하는 한편 진보 좌파¹⁾ 정치인이나 정당, 이들을 지지하는 세력에 대해 극단적이고 적대적인 감정과 담론들을 확대재생산하는 정치적 전위처럼 존재한다. 중편은 너무나도 선명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미디어라는 공적 무대를 전장으로 만들고 있다.

김세은은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전장(arena)에서 다투는 정신의 발현이며 의미를 위한 투쟁이라고 말한다. 의미를 통해 권력이 창출되고 유지되며 변형되는데, 여러 세력들이 권력과 이익을 위해 의미 투쟁을 벌인다. 미디어를 장악하고 이용하려는 집단과 세력들이 벌이는 투쟁은 가장 가시적이며 치열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전장이다(2014, 187-192쪽). 중편은 현재 가장 대립적인 두 세력 혹은 두 나라의 전사들을 분명하게 대립시키고 이들이 서로 싸우게 만드는 전장이다. 특히 두 세력의 힘이 비슷해 어느 한 세력이 완전한 지배력을 가지지 못할 때 그 싸움은 더욱 맹렬해진다. 두 세력 사이에 비무장지대는 아주 잠시 특별한 순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거나 무력화된다. 중편이 비무장지대가 되어 시민들이 ‘조작’되어진 적대감과 편향성’을 벗어나 이성적인 정치적 경쟁을 벌일 수 있는 공론장을 제공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지경이다. 전장으로서의 미디어에 오르는 전사들은 언론의 공정성이라는 규범적 외투 따위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 전사들은 대중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수행하는 전투적 설득 행위에 필요한 언어적 창과 방패를 필요로

1)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의 복잡한 정체성과 역사적 형성 및 현재의 구분법에 대해 이 논문은 다루지 않는다. 이 글은 정치 구도적 측면에서 이승만,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로 상징되는 정치사적 계보와 정체성에 기초한 정치세력을 보수 우파로, 김대중, 노무현으로 상징되는 반독재 민주정치 세력이나 민주노동당(진보신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의 분화 과정을 겪고 있는)과 같은 좌파 정당 계열을 합쳐서 진보 좌파로 구분한다.

할 뿐이다.

더욱 불행하게도 종편이라는 전장은 태생에서부터 한국 사회의 기득권과 보수 우파 집단들을 위한 또 다른 정치 무대라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무대 위의 전사들 또한 보수 우파의 국가에 적합한 인물들이 주연이 될 수밖에 없었다.²⁾ 단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김대중-노무현 세력에게 권력을 양도했다 곧바로 권력을 다시 찾은 후 보수 우파 정권인 이명박 정부는 정권의 전폭적인 지원과 특혜를 통해 4개의 우파 종편 채널을 동시에 출범시켰다. 이기형은 대기업이나 조중동과 같은 거대 신문사들이 방송 채널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2009년 「미디어법」 개정과 지상파 채널에 인접한 ‘황금 채널’의 할당, 이데올로기적 효과의 측면에서 집합적이고 동질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종편 블록화, 유료방송사업자들에게 종편 4개 채널을 의무 전송하도록 만들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납부를 유예해 줌과 동시에 중간 광고의 허용과 정부 광고 몰아주기, 80%를 국내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편성해야 하는 지상파 방송과 달리 ‘40%’ 이상으로 규정한 관대함, 미디어랩을 통하지 않고 직접 광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한 정치·제도적 지원과 특혜와 같은 종편 탄생의 정치적 맥락들을 잘 지적하고 있다(2014, 107-108쪽). 이렇게 탄생한 보수 우파 전위로서의 종편이 종합편성채널이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대부분의 방송 시간을 보도와 시사토론 프로그램으로 채우면서 노골적인 정파성과 편향성에 기초한 ‘거친 저널리즘’(이기형, 같은 글, 108쪽)을 확장시키고 있다.³⁾

종편의 출범은 농구라는 경기에 비유하자면 보수 우파 세력의 ‘올코트프레싱(all court pressing)’의 결과물이었다. 신문산업의 전체적인 쇠락기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등 보수 신문사들이 경제적인 탈출구를 찾아야 했고, 신문 시장을 독과점하면서 견고하고 형성해 놓은 보수 여론 시장을 유지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에 직면했을 때 이명박 정부를 포함한 집권 여당 의원, 미디어 관련 공공기관, 연구소, 학자들이 종편 허가를 위한 입체적인 종합 공세를 펼쳤다. 김서중에 따르면, 당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수많은 통계치를 제시하며 방송 시장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설파하면서 종편

2)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의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2월의 경우 종편 시사토크쇼 출연자 중 친여 성향 인물이 65%에 달하고, 친야 성향 인물은 1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채널A의 〈뉴스스테이션〉의 경우 친여 성향의 인물이 83%에 달할 정도로 보수 우파 인물들의 일방적인 말화들이 종편을 지배한다.

3) 2014년 기준 종편의 보도 시사 프로그램 편성 비율은 TV조선 48.2%, 채널A 43.2%, MBN 39.9%, JTBC 14.2%로 나타났다. 종편 채널 내에서도 TV조선, 채널A, MBN은 보도 시사 프로그램의 편성에 집중하는 반면, JTBC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들을 편성하고 있다(〈그린투데이〉 2014. 7. 11). 종편 채널 허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도 시사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25% 이내로 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아직까지 종편3사는 실질적으로 보도 시사 전문 채널로 위치하고 있다.

과 같은 방송사업자를 늘려 방송산업을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방송산업이 신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성장 담론들을 생산하는 역할을 했고, 이명박 정부와 여당 의원들은 지상파의 시장 및 여론 독과점 논리를 내세워 방송 시장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정부와 여당은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발위)>라는 기구를 만들어 온갖 편법 운영을 통해 미디어 관련법들을 통과시키는 데 동원 기구로 활용했다. 미디어 관련법 개정은 신문사와 대기업이 뉴스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들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에 진출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는 장기적으로 자본과 보수 정치세력, 그리고 수구 언론이 지배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단계였다고 할 수 있다. 미디어 관련법이 통과한 이후 당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유력한 박근혜 의원이 설립한 국가미래연구원에 참여한 서울대 이병기 교수가 종편 채널 설립 허가를 위한 심사위원장이 됐고, 결국 4개의 종편이 탄생했다. 물론 이 4개의 보수 우파 종편을 탄생시키기 위해 계량 평가에서 1, 2위를 했던 사업 신청자들을 비계량적 평가에서 후순위로 밀어내 탈락시켰던 ‘그들의 세계에서 항상 있는’ 일이 반복되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또 종편 4사의 주주 과반수 이상이 비상장회사로 구성되거나 파산 위험이 컸던 저축은행들을 대거 끌어들이는 점, 외국 자본의 진출 허용, 종편의 의무 전송, 24시간 방송, 중간광고 허용, 국내 프로그램 편성 비율 완화, 방송통신발전기금 면제, 황금 연번 채널 배정, 직업 광고영업 허용 등(김서중, 2013) 보수 우파 종편을 위한 종합적인 정치 프로젝트가 가동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나의 정치 프로젝트로 시작된 종편은 지난 5년 동안 텔레비전의 전장화를 이끌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종편의 기이한 방송 전쟁에 대한 제동은 거의 없다. 여러 규범과 윤리, 제도적으로 합의된 틀 내에서 작동하는 텔레비전 방송이 특정한 정치 세력의 전사가 되어 극단적이고 맹목적인 편향성과 공격성을 드러내는 것은 심각한 퇴행이다. 이들은 거의 하루 종일 뉴스 보도물과 정치 관련 프로그램들로 자신의 채널을 채우며, 충성스러운 전사들을 출연시키고 이들의 전투성을 자극한다. 이들은 여전히 ‘자극과 반응(S-R)’이라는 매스커뮤니케이션 모델에 기초하고 있으며 정치 테러리스트화 된다. 종편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에 의해 많은 견제와 개선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지만 종편은 이러한 목소리들을 무시하거나 무력화시키고 있다. 오히려 종편이 쏟아내는 거친 목소리들이 오후 시간대를 점유하고 충성스러운 시청자들을 결집시키며 그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정치적 효과를 확장시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15 방송 채널 평가지수’ 조사에서 JTBC는 지상파 3사를 앞질러 1위를 차지했고, MBN이 4위, 채널A가 6위, TV조선이 8위를 차지하면서(2위 KBS-1, 3위 SBS, 5위 KBS-2, 7위 MBC) 종편은 이미 그리고 ‘충분히’ 지상파와 대등한 경쟁자로 부상했다.⁴⁾ 언론학자들도 끊임없이 서로에게 질문한다. “종편이 이렇게

까지 클 수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 “종편의 정치적 영향력이 어디까지 갈 것이며, 여기에 제동을 걸 수 있을까?” 하는 질문들이 오간다.

종편 저널리즘이 정치적 영향력을 점차 더 증대시키는 요인들은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는 정치와 대중을 매개하는 ‘정치 매개 엘리트’들의 역할과 이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지는 ‘종편 스타일 저널리즘’에 주목한다. 소위 ‘종편 타임대’라고 불리는 오후 1~6시까지 종편 4사에서 방송하는 종편 스타일의 시사토크쇼나 보도 프로그램들이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고 시청률을 추동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정치에 대해 말하고 토론하며 자신의 의견을 과감하게 제시하는 출연자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 종편 시사토크쇼의 인기가 높아지자 종편을 거부했던 진보 좌파 진영의 정치인이나 학자,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도 종편 시사토크쇼에 출연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예능화된 시사 프로그램의 형식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했다. 또 이 과정에서 종편은 정치적 전장으로서의 긴장감이 커지면서 종편 출연자들이 펼치는 격렬한 입담과 논쟁이 가지는 재미와 ‘정치 이야기’를 결합시키는 데 성공했다.

종편 시사토크쇼의 무대는 월등히 많은 수를 차지하는 보수 우파의 정치 매개 엘리트들이 압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채널에 따라 서로 대립하는 정치 성향을 가진 정치 매개 엘리트들을 배치해 이들 간의 대결을 끊임없이 연출한다. 이에 따라 정치와 대중을 매개함과 동시에 자신의 평론과 토론, 의견을 통해 또 다른 정치 행위를 수행하는 정치 매개 엘리트들은 종편을 자신의 정치 행위의 무대로 간주한다. 일부 정치 매개 엘리트들은 촘촘하게 짜인 종편 출연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고 여기에 필요한 매니저와 내용 준비를 위한 비서까지 고용할 정도이다. 이들은 종편에서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다른 정치 매개 엘리트들과 경쟁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상징적 자산을 축적하며, 이를 통해 정치권에 직접 진입하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행사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종편 저널리즘을 재조명하는 데 있어서 정치 매개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시사토크쇼에 주목하면서 종편 저널리즘의 정치적 효과와 함의들을 발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6년 1월 한 달 동안 방송된 종편 4사의 시사토크쇼를 모니터링하면서 이들이 다루었던 이슈⁵⁾, 진행자와 출연자 구성, 진행자나 출연자들이 보도나 토론과

4) Ohmynews(2016. 04.29). JTBC, 2년 연속 지상파 앞지르고 평가 1위.

5) 2016년 1월은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 내부의 갈등이 고조되고 야권의 분당과 의원 탈당 및 신당 창당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던 시기로 시사토크쇼가 집중하고 있는 정치 이슈들이 부각되고 이 이슈들에 대한 진행자와 출연자들의 논평과 토론이 예상되던 시기임을 감안해 분석 대상 기간을 1월로 선정했다. 각 채널 및 프로그램별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치 방송분 총 20회 차를 모니터링하면서 날짜별로 다루어진

정에서 옹호·지지·보호하는 대상 혹은 조롱·비난·비판·저주하는 대상, 논평에서 사용하는 주요 어휘나 표현들을 기록하였다.⁶⁾ 종편 4사의 시사토크쇼에는 TV조선의 〈장성민의 시사탱크〉, 채널A의 〈쾌도난마〉, JTBC의 〈5시 정치부회의〉, MBN의 〈뉴스와이드〉가 포함된다. 이 프로그램들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소위 종편 타임이라고 말해지는 시간대에 편성된 것으로, 시청률이 높고 종편 4사에서도 비중 있게 편성하는 프로그램으로 분석 대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또 시간대를 달리 해서 프로그램을 선택하고자 했는데, 동 시간대에 편성되는 프로그램들을 함께 분석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종편 타임대’라고 불리는 시간대의 흐름 속에서 시청자들이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프로그램들을 선택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다만 JTBC의 〈5시 정치부 회의〉는 다른 종편 3사의 시사토크쇼와 비교하기 위해 특별히 선택했다. 이 프로그램은 외부 출연자들이 아닌 JTBC의 정치부 기자들이 주요 뉴스들을 보도하고 관련 이슈들에 대해 논평·토론하는 형식을 띠는 점에서 외부 출연자들로 구성된 시사토크쇼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교와 차이의 발견을 통해 다른 종편 3사의 시사토크쇼가 가지는 특징이나 문제들을 더 잘 발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 프로그램을 선택했다.

2. 종편 저널리즘에 대한 기존 연구와 평가

종편에 대한 언론학자들의 연구들을 보면, 종편의 뉴스 보도나 시사 프로그램과 같은 종편 저널리즘의 특징이나 차별화 전략, 공정성, 수용자들의 정치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분석적 연구와 종편 저널리즘이 표출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비판과 개선을 요구하는 연구 경향이 두드러진다.

우선 원희영과 윤석민(2015)은 종편 출범 후 치러졌던 18대 대통령선거 보도에서 종편 4사의 보도 공정성을 분석했다. 종편의 보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던 상황에서 종편의 불공정성이나 편향성에 대한 직관적이고 자기 이념에 기반한 비판이 아닌 실증적 분석을 통해 평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 연구는 뉴스 프로그

이슈를 모두 기록하였지만, 이 글에서는 해당 분석표를 모두 제시하지는 않고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한 내용만을 실는다.

6) 이 분석을 위해 연구 대상 4개 채널의 진행자와 출연자들의 발언들을 모두 녹취해 분석 항목에 맞게 구분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녹취된 발언들이 모두 제시되지 못하고 대표적인 사례들만 제시되고 있음을 밝힌다.

램이 활용한 취재원과 인터뷰이, 출연자 등 등장인물의 균형성과 발언의 편향성(증거 없는 주장, 감정 및 추론에 의지하는 호소 등)을 분석하는 방법을 활용했다. 저녁 8시에서 11시 사이에 편성되는 종편 채널의 저녁 메인 종합뉴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연구는 비교 대상이었던 지상파 SBS에 비해 등장인물의 균형성이나 발언의 편향성 측면 모두에서 편향성이 강했고, TV조선과 채널A가 다른 채널에 비해 더 큰 편향성을 드러냈으며, 야당의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했던 선거 후반부로 갈수록 이 같은 편향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두 연구자는 종편의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근거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금희조와 조재호(2015)는 종편의 시사토크쇼 시청이 수용자들의 정치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이 연구는 대담 형식을 띠고 있는 종편 시사토크 프로그램들이 주제의 선정성, 정치적 편향성, 추측성 발언, 지나친 사생활 들추기, 과도한 막말 등으로 문제시되고 미디어의 비시민성의 부정적 영향이 실제 수용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에 대한 수용자들의 신뢰에 미치는 종편 시사토크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했다.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29명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인의 정치 성향이 보수적이고 종편 시사토크 프로그램의 시청 빈도가 높을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도나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한 긍정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다만 종편 시사토크쇼가 정부나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보다 정부나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사람들이 시사토크쇼를 많이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보 층의 경우 종편 시사토크쇼의 시청량이 많을수록 정부나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에 큰 차이를 보인다는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했다. 즉, 종편 시사토크쇼가 진보적 시청자의 정부나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를 증가시키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한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종편 저널리즘에 대한 기존 연구와 다른 차별성을 갖는다. 연구자들은 이에 대해 종편 시사토크쇼가 보수적인 이데올로기를 대변하고 있지만 오히려 진보적인 시청자 층의 정치적 신뢰를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역설적 효과라고 말한다(금희조·조재호, 2015).

류동협과 홍성일(2014)은 종편 저널리즘이 지상파 공영방송이나 상업방송과의 경쟁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차별화 전략을 연구하였다. 이들은 부르디외의 장(field) 이론의 활용을 통해 종편 저널리즘을 기존의 저널리즘 장을 새롭게 구조화하는 행위자로 간주한다. 종편은 비교적 자유로운 규제를 기반으로 상징 자본을 꾸준히 축적해 가고 수익원이 되는 광고를 적극 활용하며, 정치적 장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한다. 한정된 정치평론가들이 종편 채널들을 오가며 정책을 검증하기보다 논쟁을 촉발하고 판세를 분석하거나 누가 정치적 주도권을 쥌 것인지를 중심으로 논평과 토론을 수행함으로써 정치장에 대한 영향력을 증

대시키는 것이다. 이는 정책보다 여와 야의 진영 논리를 통해 시청률을 확보하려는 종편의 경제적 장에 대한 구속성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이 연구는 JTBC가 다른 종편 채널들과 달리 차별화하고자 하는 전략도 제시하는데 JTBC가 정파적 종편 수용자만이 아니라 일반적 시청자를 지향하면서 종편의 편파성, 주창성, 선정성이라는 부정적 비판을 넘어 지상파 방송 저널리즘과 경쟁하려는 차별화 전략에 대한 관심을 담고 있다.

박지영·김예란·손병우(2014)는 종편 시사토크쇼의 '사담' 형식이 사회자와 대담자가 대화를 나누면서 전통적 저널리즘과는 상이한 방식으로 시청자들에게 말을 걸고 관계를 설정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사담 형식은 대화 참여자 간에 내밀하고 평등한 관계를 설정하면서 사회자와 대담자가 주고받는 대화는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주체와 이러한 감정을 야기하는 특정한 대상을 객체로 위치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들은 엄숙주의와 객관주의를 내려놓은 '사담'의 진지하지 않은 담화 스타일, 친근함과 편안함을 나타내는 소품, 뉴스 장르와 객관성, 권위, 신뢰감을 구현하는 장치들을 융합시키는 미장센과 담화 양식을 제시한다. 시사토크쇼가 시청자와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정치적 의혹을 파헤치고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는 해결자로서의 권위를 취하면서도 공적인 이슈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라는 정통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공식성을 내려놓고 코믹한 어투와 미장센을 통해 친근하고 사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스타일에 대한 미학적 해석을 덧붙인다.

종편 저널리즘의 문제에 대한 비판과 개선을 요구하는 연구들을 보면, 우선 이기형(2014)은 '과잉된 정파적 저널리즘'과 '홍분하는 시사토론 프로그램'이라는 표현을 통해 종편 저널리즘의 양상들을 비판하고 있다. 그는 종편의 부상이 매우 정파적이고 여권 편향적이며 거친 저널리즘을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종편 저널리즘은 보수 신문의 논조와 지향성이 걸리지거나 변화하지 않은 채 강한 돈과 경사된 화법으로 공격적인 스토리텔링에 기반한다. 이 같은 종편 저널리즘은 언론이 규범적으로 준수하거나 성찰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공정성과 공공성의 발현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 또, 여권 편향과 보수적인 의제의 집중적인 담론화와 상업화 전략이 결합된다. 이기형은 또한 "그나마 공중파 방송이 보수와 진보의 중간 역할을 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견제해 왔는데 보수 신문들이 보수 방송을 만들면서 방송의 중도성이 무너졌고, 더 나아가 종편이 공중파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김성해의 주장에 동의한다. 김성해는 저널리즘의 본래 역할인 사회적 통찰, 성숙한 시민의식의 함양, 여론 형성보다는 감정적 쏠림현상, 표피적 비난을 일삼아 정치 냉소주의와 극단적 편 가르기 등을 만들어 냈고 동시에 상업주의로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는 선정적 매체가 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 이기형은 종편은 다양한 콘텐츠의 부족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투자와 재원의 한계로 인해 제작 단가가 저렴한 대신에 기존의 보수·친여권 성향의 수용

자들을 견인할 수 있는 담론화의 전략과 함께 정치적인 소재들의 예능화와 같은 측면에 주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종편 저널리즘은 특정 집단이나 인물에 대한 치우치고 의도된 비난과 피아의 구분, 다분히 감정적인 대상화와 타자화의 재현 전략에 의존하고 있다(이기형, 2014)는 것이다.

홍성일(2014)은 ‘보수적 방송 저널리즘의 출현 혹은 페니 프레스의 텔레비전화’라는 글을 통해 종편이 상업적 전략 속에서 뉴스를 특화된 콘텐츠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과 페니 프레스 전략, 즉 뉴스와 시사 콘텐츠를 염가로 대량 판매해 대규모의 구독자를 확보하기 때문에 시청자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소재도 끌어 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페니 프레스가 신문의 가격을 낮추어 뉴스를 일반 대중에게까지 확대했던 것과 달리 종편은 뉴스 가치를 낮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언론단체나 종편 외의 다른 언론 매체들도 종편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2016총선보도감시연대, 민언련, 언론개혁시민연대, 문화연대, PD저널,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시사IN, 레드앙 등) 이들은 종편 시사토크쇼 출연자들의 막말 행태, 모기업인 보수 신문의 논조의 재생산, 출연자들의 심각한 정치적 편향성, 야당이나 소수 집단에 대한 적대성과 혐오, 사실 확인 없는 ‘설’ 유포, 억지스러운 질문이나 논리,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경마식 보도, 다른 매체가 생산한 오보의 의도적 활용, 중복 색깔 공세, 기업이나 정부의 돈을 받고 뉴스를 제작하는 행위 등의 누적된 문제들에 대해 비판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 언론인 강찬호는 종편에 얼굴을 드러내는 ‘정치평론가’ 집단의 문제를 지적한다. 우선 그는 정치평론가 집단을 몇 개 부류로 나누었다. 이에 따르면 첫 번째 부류는 과거 정치권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당료나 보좌관, 특정 정권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정치권에서 쌓았던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평론을 수행한다. 둘째, 정치권을 취재했던 전직 기자와 같은 언론인 집단이 있다. 셋째, 여론조사 기관이나 연구소 출신 인사들, 넷째, 교수나 학계 인사들이 있다. 또, 언론 평론가나 문화 평론가 등 다른 영역의 평론가들이 정치 평론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활동하는 경우도 많다. 이들의 평론은 대부분 논조의 획일성, 과도한 당파성, 원색적이고 선정적인 표현, 객관적인 사실과 균형적인 판단력의 상실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2013, 249-250쪽). 이들은 또한 정치 현실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신의 이념이나 주관적 견해를 평론으로 포장하여 쏟아냄과 동시에 방송 출연 직전 신문이나 다른 매체에 보도된 내용들에 의존하면서 마치 자신의 견해인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강찬호에 따르면, 종편의 프로그램 형식도 정치 평론의 공해를 부추기는 원인이다. 시사토크쇼는 종편들이 값싸게 제작해 쉽게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손쉬운 포맷이자 평론가

들을 통해 방송사들이 지향하는 정치적 입장을 시청자들에게 은연중 세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이득도 큰 프로그램이다. 이렇다 보니 하루에 4, 5개씩의 시사토크쇼가 남발되고 급조된 평론가들이 겹치기 출연을 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주장, 질 낮은 평론을 반복하게 된다. 또한 정치 평론이 예능화되면서 자기 탐닉적인 평론에 빠지게 되고 정치 평론에서 의미 대신 반복적인 쾌락과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재안정화하려는 악순환에 빠져든다(강찬호, 같은 글, 252-253쪽).

전통적인 뉴스 보도 형식이나 시사토론 프로그램과 다른 새로운 형식이 가지는 장점과 긍정적인 측면을 진단하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연구와 평가들은 종편 저널리즘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종편이 출범할 때 다른 매체의 기자들과 언론학계, 언론단체 등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편이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몰락할 것이라거나 1~2개의 종편 채널을 제외하고 다른 종편은 시장에서 생존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실제로 출범 직후 종편은 온갖 제도적 특혜와 정권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에서 최악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다. 하지만 출범 5년이 지난 현재 그 누구도 종편이 가진 힘을 부정하지 못한다. 종편 허가를 반대했던 야당 추천 방송통신위원들도 시간이 흐를수록 종편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언론 연구자들은 종편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종편 시청률은 높아지고 종편을 그토록 비난하던 야권의 정치인이나 평론가들도 종편 출연 빈도를 높여 나갔다. 2014년 종편의 방송 매출은 4,016억 원으로 2013년 대비 31.2% 증가했다. 종편의 광고나 협찬 매출은 20.2% 증가했으며, 광고 시장의 점유율도 10%를 기록했다. 반면, 지상파의 방송 매출은 2.8% 증가하는 데 그쳤고 광고 매출 시장 점유율은 0.6% 하락했다. 오후 1~4시 사이 종편의 프로그램 실시간 시청률은 지상파 채널 실시간 시청률을 넘어섰다. 이 시간대에 종편 채널들은 그 어떤 채널보다 더 강력한 충성스러운 시청자층을 형성하고 있다(〈PD저널〉, 2016년 1월 25일). 충성도 높은 시청자 중에 60대 이상의 노인층은 종편의 핵심 시청 층이다. 60대 이상 연령층의 종편 시청률은 종편 평균 시청률의 2.5배가 넘는다. 종편 타임대라 불리는 오후 시간대 60대 이상의 충성도 높은 시청자들은 종편이 쏟아내는 뉴스와 시사토크쇼 앞에서 그들의 눈과 귀를 기울이고 있다.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지점은 지상파의 '종편 따라하기' 현상이다. 초기 종편의 보도나 시사 프로그램은 지상파 방송사의 그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뉴스를 전하고 관련 해석과 논평을 덧붙이는 형식이었다. 하지만 시사토크쇼에 시청자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평일 오후 시간 내내 시사토크쇼 프로그램들을 편성하게 된 것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매주 1회 정도 심야시간에 시사토론프로그램을 방송했던 것과 달리 종편은 훨씬 더 선정적

이고 강렬하며 ‘꾸밈없는’ 시사토크쇼를 전면에 내세워 시청률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지금은 지상파가 반대로 종편 따라하기에 나섰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오후 시간대에 시사 인터뷰 프로그램들을 편성하기 시작했다. KBS-1의 〈시사진단〉, SBS의 〈뉴스브리핑〉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KBS와 SBS는 오후 시간대 시사대담 프로그램을 편성해 그 이전에 비해 동시간대 시청률이 상승하는 효과를 보았다(예: 그린투데이, 2014년 7월 11일, 일부 내용 수정). 종편의 시사토크쇼는 텔레비전 방송의 오후 시간대를 대표하는 저널리즘의 새로운 장르로 자리 잡았다.

3. 시사토크쇼와 정치 매개 엘리트들

정치나 사회적으로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수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치 엘리트’(G. Parry, 1976)는 정치학과 사회학의 주된 관심 대상이었지만 미디어 연구에서도 중요한 대상일 수밖에 없다.⁷⁾ 특히 여론과 대중들의 정치적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의 측면에서 보면 정치 엘리트들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정치 엘리트들은 정부나 정당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직접 주도하기도 한다. 또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에 기초해 대중화된 담론들을 생산하고 확산시킴으로써 특정한 가치들을 제시하면서 공동체를 통합시키는 힘을 발휘한다. 정치 엘리트들은 사회의 주요 위치나 지위를 획득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가지는데 있어서 다른 사회 집단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래서 이들의 힘이 비대해지고 다른 사회 집단들을 배제하게 되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반면, 정치 엘리트들은 전체주의의 위협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보루로 간주된다(G. Parry, 1976). 페리는 정치 엘리트를 정치인으로 국한시키지 않는다. 정치 엘리트에는 사회에서 가치들을 할당하는 데 영향을 미치거나 이 가치들을 정당화하는 다양한 집단들이 포함된다. 기업가, 노조, 관료, 군인들도 페리의 관점에서 보면 정치 엘리트에 포함된다.

현대사회에서 정치는 정치 엘리트 사이의 게임과 같다(G. Parry, 같은 책, pp. 65-66).

7) 페리의 정치 엘리트에 관한 저서는 이 논문의 정치 매개 엘리트라는 개념적 활용을 위해 참조·인용되고 있음을 밝힌다. 페리는 저널리즘의 장에서 정치 영역과 대중을 연결하는 언론인, 정치 평론가, 칼럼니스트, 정치 프로그램 출연자와 같은 정치 매개적 엘리트에 대해서 별도로 서술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 논문이 주목하고 있는 정치 엘리트의 한 분파로서 정치 매개 엘리트라는 개념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페리의 저서를 참고하고 인용하였다.

다양한 유형의 집단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일종의 정치 게임을 벌이는데, 정치 엘리트들은 정치 게임의 주도자가 된다. 공적인 일들은 서로 다른 가치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과 이들로부터 경제적, 사회적 자원을 획득하는 정치 엘리트들의 게임과 영향력 아래 놓인다. 이들은 전체적으로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쟁자들이다. 그리고 정부와 의회, 미디어는 정치 엘리트들이 벌이는 정치 게임의 가장 핵심적인 장소이다.

정치 엘리트 집단 중에 정치나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논평, 토론, 의견을 제시하며 대중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매개 엘리트들이 있다. 정치나 사회적 이슈들을 대한 해석과 논평, 토론과 의견 제시를 통해 정치 영역과 개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치 매개 엘리트들은 주로 정치나 행정 영역 종사자, 언론인, 각종 평론가, 대학 교수나 전문직 종사자,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들로 구성된다. 대의제와 대중 선거 정치에서 정치 매개 엘리트들의 비중과 영향력을 커질 수밖에 없다. 인터넷과 SNS와 같은 미디어 환경에서 정치 매개자들도 다양해지고 분산되는 것 같지만 신문이나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전통적인 주류 미디어에서 활동하는 정치 매개 엘리트들의 영향력은 여전히 크고 견고하다.

미디어가 득세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정치 매개 엘리트들은 미디어와 정치, 대중에게 폭넓은 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미디어를 통해 정치인, 정당, 정치 제도, 선거와 각종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자신들의 관심과 생각들을 제시하고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미디어의 정치적 영향력은 정치 매개 엘리트들의 전문적인 평론과 토론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단순한 뉴스 보도보다 평론과 토론은 대중의 사고 형성에 더 크게 관여한다. 이에 따라 정치 매개 엘리트들은 대중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자신의 평론과 토론에 따라 긍정적, 부정적 반응들에 직면한다. 미디어에서 활동하는 정치 매개 엘리트들은 정치적 균형성이나 객관성을 유지하기 힘들다. 이들은 개인적으로나 언론사 차원에서 각기 다른 판단 기준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특정 집단과 진영에 속해 이들의 집단적 사고를 공유하기 때문에 (김재홍, 2002, 91-94쪽)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평론과 토론을 하기 어렵다.

종편의 출범과 시사토크쇼 중심의 종편 저널리즘 형식이 늘어나면서 정치 매개 엘리트들의 새로운 활동 공간이 늘어났다. MBC <100분 토론>, KBS <생방송 심야토론>, SBS <시사토론>과 같은 시사토론 프로그램이나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뉴스 보도 프로그램의 대담자 형식으로 출연해 왔던 과거와 달리 종편 4사가 방송하는 시사토크쇼 프로그램에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가진 정치 매개 엘리트들이 평론과 토론의 역할을 수행한다. 종편 출범 초기 이철희, 고성국, 박상병, 황태순, 유창선, 박상현, 신율, 윤희웅, 이택수 등 교수, 언론인, 정당이나 정치 경험자, 여론 및 사회조사 기관 출신들이 정치 매개 엘리트층을 형성했다. 이들은 '정치보다 더 흥미롭고 정치적인' 평론을 주도하며 종편 채널에서 선호하는

집단이 되었다. 정치 매개 엘리트들은 여당 성향, 야당 성향으로 분류되고 토론 능력이 검증된 사람들로 평가받는다. 대학 교수를 제외하고 출연 빈도가 높은 사람들은 주로 국회나 정당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정당이나 정치권에서 일한 경험은 정치를 들여다보는 시각이 넓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정치적 편향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보수 성향의 정권에서 보수적 정치평론가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시사IN〉 2012. 12. 1).

정치 매개 엘리트들은 시사토크 프로그램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도 지적된다. 평론과 토론의 방향이 방송 전에 작가나 PD, 경영진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출연자들은 작가가 제시하는 방향에 동의하고 만약 이에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출연자는 다시 섭외하지 않는다. 재벌을 비판할 때 결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재벌을 살려야 한다는 논리나 정부 정책이나 여당을 비판하다가도 갑자기 무능한 야당보다 낫다는 식의 토론이 이루어진다. 종편에서 선호하는 출연자들은 보통 하루 3~4곳에 출연하면서 방송사 앞에는 자동차가 대기하고 매니저를 고용하기도 한다. 또 종편은 거칠고 선정적이며 공격적이고 명패한 대결 논리를 선호하고, 출연자들은 이 같은 분위기를 거부하지 못한다(〈한겨레21〉 2015. 3. 18).

2013년 8월부터 종편의 시사토크쇼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언론단체 ‘민언련’은 모니터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보고서들은 ‘정치 뒷담화’ 수준의 평론과 80% 가까운 비율로 구성된 ‘친정부 성향’ 패널들, 노골적인 정부 옹호, 야권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 저질 언어 사용 등의 반복되는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다. 또, 2015년 1월 한 달 동안의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특정 출연자의 겹치기 출연⁸⁾, 전문 평론가가 아닌 섭외가 쉬운 출연자를 모은 뒤 깊이 없이 백화점식으로 늘어놓는 토론,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니어도 이것저것 모든 것을 말하고 끼어드는 출연자, 근거 없는 인신공격과 명예 훼손, 무지에 가까운 인권 의식 등의 문제들이 계속되었다. TV조선의 〈시사토크 판〉·〈돌아온 저격수다〉·〈장성민의 시사탱크〉·〈황금편치〉·〈이봉규의 정치옥타곤〉, 채널A의 〈쾌도난마〉·〈이언경의 직언직설〉·〈시사병법〉·〈청와대 25시〉·〈논설주간의 세상보기〉, MBN의 〈뉴스파이터〉·〈뉴스BIG5〉·〈뉴스&이슈〉·〈송지현의 뉴스와이드〉·〈아침의 창 매일경제〉, JTBC의 〈밤샘토론〉 등 2015년의 대표적인 시사토크쇼들이 당시 분석 대상 프로그램들이었다(민언련, 2015년 3월 12일 보고서).

8) 종편 시사토크쇼의 겹치기 출연자는 종편 3사를 순회하며 한 달 기준으로 50회가 넘는 출연 횟수를 기록한 적이 있다. 방송 출연 스케줄을 담당하는 매니저와 자료와 논평 내용을 준비하는 비서까지 두고 활동하는 출연자들이 다수 있다는 설이 종편 방송계에 나돌 정도이다.

출연자들의 구성을 보면 교수(객원, 초빙, 연구, 특임교수 등 포함) 직군이 가장 많은 21%, 변호사와 연구소(연구소장, 연구원 등) 종사자가 약 14%씩, 전·현직 언론인 13%, 정치인(전·현직 정치인, 정당인, 국회 및 청와대 근무 경력자, 기초의원 출신 포함)이 12% 정도로 나타났고, 평론가(시사평론가, 정치평론가) 집단이 6%로 나타났다. 기타 출연자에게는 의사, 연예인, 영화감독, 탈북자 등이 포함되었다.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발언 속에서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는 출연자 중 보수 성향이 32%, 진보 성향이 4%, 중도 성향이 0.5%로 나타났고, 발언상으로 성향을 구분하기 힘든 출연자가 60%로 나타났다. 종편 4사에 5회 이상 겹치기 출연한 출연자는 없었지만 JTBC를 제외한 종편 3사에 5회 이상 겹치기 출연한 패널은 13명, 종편 2사 출연자 25명이었다. 김태현(52회), 황태순(37회), 김복준(34회), 이웅혁(28회), 박지훈(26회), 이양수(25회), 백기중(23회), 김성욱과 이두아(각 21회)로 겹치기 출연자 상위 10위권을 기록했다.

출연자의 경력과 토론 주제 및 내용을 대조한 결과 자신의 전문 분야에 맞는 토론이 53%, 비전문 분야에 대한 토론이 48%로 거의 반반에 가깝게 전문 분야와 비전문 분야를 오가며 토론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변호사 김태현 씨는 종편 3사에 중복 출연하면서 89건의 주제에 대해 토론했다. 판결이나 사건 분석과 같은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한 토론은 34건(38.2%)에 그쳤고, 55건(61.8%)은 정치와 문화 등 비전문 분야였다.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도 자신의 전문 분야인 언론과 북한 문제(25건, 27.1%)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다른 주제 67건(72.9%)을 오가며 토론했다(<한겨레21> 2015. 3. 4). 민언련 보고서는 이에 대해 ‘인상 비평’, ‘떼 토크’라는 비판이 가능한 대목이라고 지적한다.⁹⁾ 언론인 강찬호 또한 출연자들의 비전문성과 깊이 없는 평론, 다른 매체의 보도 내용들을 조합한 정도의 평론 수준에 대해 비판한다.

종편의 뉴스나 시사토크쇼 프로그램들이 ‘종편 타임대’라는 용어까지 만들어 내면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데에는 정치 영역의 사건들을 마치 시청자 한 명 한 명에게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사담 형식으로 전달하는 정치평론가들의 역할이 컸다. 술자리와 같은 사적인 공간에서 정치적 사안이나 정치인들에 대해 자유롭게 말을 나누거나 정제되지 않는 비난과 욕설들을 행하는 문화에 익숙한 한국 사회에서 명확한 자기 입장과 정치적 성향

9) 신혜식 대표는 배우 최민수가 세월호 사건을 언급하며 2014년 MBC 연기대상 황금연기상 수상을 거부한 것에 대해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면 방송도 하지 마시지, 왜 방송은 하면서 상은 안 받으시니까? 참 나 말이죠, 멋있으려고요? 최민수 씨, 말 하나 가지고 국민들에게 찻집함을 주셨는데요, 반성하세요(2015년 1월 20일 토론)”라는 식으로 논평을 했는데, 출연자의 논평이나 토론이 인신공격, 표피적 인상 비평, 개인감정 드러내기와 같은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을 가진 정치평론가들이 쏟아내는 평론과 토론이 주는 재미나 감정 이입, 분명한 편 나누기와 정치적 위치잡기와 같은 심리적 동학들이 종편 시사토크쇼를 뒷받침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하지만 종편의 진행자나 출연자들(정치 매개 엘리트)은 시사토크쇼에서 수행하는 자신의 퍼포먼스를 통해 획득한 상징 자본(명성, 명예, 시청자의 지지)이나 특정 정치인이거나 정당 혹은 정치집단에의 기여도와 같은 자산들을 단순히 시사토크쇼라는 무대에서의 생존을 위해서만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들은 이렇게 획득한 여러 유형의 자산들을 또 다른 정치적 거래와 교환을 위해 활용할 것이며, 종편 시사토크쇼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가장 적극적이고 노골적인 정치적 거래와 교환을 위한 장소가 될 것이다.

4. 종편 4사 시사토크쇼가 만들어 내는 텔레비전 정치

종편 4사의 시사토크쇼가 어떠한 정치적 관여를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중에서도 진행자나 출연자들의 정치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2016년 1월 한 달 동안 종편 4사의 시사토크쇼 프로그램들을 모두 모니터링하면서 첫째, 종편 4사의 시사토크쇼가 어떤 이슈를 다루고 있는지, 둘째, 출연자 구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셋째, 진행자나 출연자들이 옹호, 지지, 격려, 보호 등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출하고 있는 우호적 대상이 누구인지, 넷째, 반대로 진행자나 출연자들이 조롱, 비난, 혐오, 적대 등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출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다섯째, 이 같은 감정과 생각의 표출에 있어서 각각의 대상에 부착되는 주요 표현과 규정적 언어들이 무엇인지를 기록하였다.

1) 종편 4사가 다룬 주요 이슈

TV조선의 <정성민의 시사토크>는 ‘북한 관련 이슈’를 6회, 사드 배치 논란 1회, 박근혜 대통령 입법 촉구 서명 운동 논란 1회, 경제 불황과 위기 1회, 반기문 UN사무총장 동정 관련 1회를 제외하고 전체 18회(18일)에 걸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4·13 총선 관련 이슈를 토론의 주제로 다루었다. 북한 관련 이슈에는 김정은의 군부대 시찰, 북한 고위급 관리의 다보스포럼 파견, 북한에서 사업 중인 오라스콤의 외자 반출 금지¹⁰⁾, 수소탄과 핵실험 파장에 따른 대북 확산기 방송 논란, 북한 내부의 권력

10) 오라스콤은 2008년 북한에 세워진 이집트 통신회사이다. 북한 주민 300만 명이 통신 서비스에 가입했고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수익금을 이집트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암투설과 중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이슈들이 포함되었다. 정치 관련해서는 총선을 앞두고 복잡하게 전개되는 정당 내부의 갈등과 계파 싸움, 각 당의 인사 영입과 평가 등이 주를 이루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갈등 구조와 문제, 더불어민주당의 탈당파와 신당 창당(국민의당) 및 야권의 분열 상황들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 관련 토론 이슈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채널A의 <쾌도난마> 또한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와 크게 다르지 않은 토론 이슈들을 다루었다. 북한 고위층 내부의 갈등과 수소폭탄 및 핵실험, 북한의 수도권 전단 살포와 한미 양국의 북한 압박 전략과 같은 북한 관련 이슈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주요 3당을 중심으로 정치권 이슈를 다루었다. 하지만 그 중심은 야권 분열과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계파 갈등,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사들의 문제들에 놓여 있었다. 1월 동안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여 국민의당을 창당하는 과정이 가장 큰 이슈였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지만, 매일 야권 분열과 야권 인사들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주제들이 배치되었다.

MBN <뉴스와이드>는 매주 금요일에 한 주간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뉴스와이드> 또한 TV조선과 채널A의 시사토크쇼와 거의 유사한 이슈 배치 성향을 가지고 있다. 북한 핵실험과 대북 제재 조치와 관련된 이슈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선거를 준비하는 주요 3당 관련 소식과 야권의 분열 사태 및 신3당 체제에서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주제들로 구성되었다. 새누리당 관련 이슈들을 다루는 빈도나 양은 매우 적고 다르다 하더라도 공천 주도권 다툼과 '진박'과 '비박' 간의 갈등 구조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JTBC의 경우 다른 종편 3사에 비해 다루는 이슈가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중요한 이슈들을 다룬다. 예를 들어 누리과정 예산 논란, 정부의 대북 정책 평가, 사드 논란, 외교부 외교 정책의 문제점 등 다른 종편 채널에서 잘 다루지 않거나 표피적으로 언급하고 지나가는 이슈들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큰 대조를 보였다. 다른 종편 3사는 거의 대부분을 정당과 선거 이슈, 특히 정치인들의 행보와 이들 간의 갈등, 판세, 탈당과 창당 등의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다루면서 북한의 핵실험 이슈가 간헐적으로 포함되었던 것에 반해, JTBC는 정부의 정책이나 문제점들에 대한 진단의 비중이 높고 대통령이나 정부의 발표나 주장에 대해 관련 사실들을 확인하고 토론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2) 종편 4사 시사토크쇼의 진행자와 출연자

(1) 진행자

TV조선	채널A	MBN	JTBC
장성민(전 국회의원/세계와 동북아 평화 포럼 대표)	이은우(채널A산업부장)	송지현(아나운서)	이상복(기자)

TV조선의 경우 전 국회의원 출신의 외부 인사가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았고, 채널A 등 다른 3사는 내부 아나운서나 기자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 출연자

채널	출연자(소속/횟수)
TV조선	<u>고영신(한양대 특임교수/7회)</u> , 이종훈(정치평론가/14회), <u>민영삼(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15회)</u> , <u>이상휘(위덕대 부총장/3회)</u> , <u>김근식(경남대 정의과 교수/2회)</u> , 전옥현(전 국정원1 차장/5회), 강명도(강성산 전 북한 총리 사위/3회), 장제원(전 새누리당 의원/1회), 김태현(변호사/2회), 송대성(건국대 초빙교수/3회), 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원장/1회), 김홍광(NK지식인연대 대표/2회),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2회), 송영선(전 새누리당 의원/2회), 우수근(중국 동화대 교수/1회), 윤정호(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1회), 사와다 가쓰미(마이니치신문 논설위원/1회), 김철우(국방연구원 연구위원/1회), <u>여상원(변호사/6회)</u> , 이규택(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1회) <u>장성호(건국대 교수/5회)</u> , 이훈평(전 의원/1회), 김성태(새누리당 의원/1회), 박태우(고려대 연구교수/12회), 이민복(대북풍선 개발자/1회), <u>이진곤(경희대 객원교수/3회)</u> , <u>배종찬(리서치 앤 리서치 본부장/3회)</u> , 정대철(전 민주당 대표/1회), 광영체(전남 도의원/1회), 박남선(518 광주민주화쟁쟁 시민군 대장/1회), <u>서양호(두문정치전략연구소 실장/2회)</u> , 양영태(자유언론인연합회장/1회), 손혁재(시사평론가/2회), 이춘수(매일신문 정치부장/1회), 김철우(국방연구원 연구위원/1회)
채널A	윤영걸(전 매경닷컴 대표/5회), 조수진(채널A 국제부 차장/6회), 최진영(대한변협 전 대변인/2회), 김성욱(한국자유연합 대표이사/9회), 한화갑(한반도평화재단 총재/2회), 고영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5회), <u>이진곤(경희대 객원교수/7회)</u> , 이남희(채널A 경제부 차장/12회), 송영선(새누리당 전 의원/1회), <u>김근식(경남대 정의과 교수/1회)</u> , 이현중(문화일보 논설위원/6회), 강철환(북한전략센터 대표/1회), 박상현(공간과 미디어연구소장/1회), <u>여상원(변호사/4회)</u> , 배병후(월간경제풍월 대표/5회), <u>장성호(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7회)</u> , 신은숙(변호사/3회),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1회), <u>이상휘(위덕대 부총장/1회)</u> , 이영작(LSK Global PS 대표이사/1회), <u>배종찬(리서치 앤 리서치 본부장/4회)</u> , 최운용(518 민주유공자회 상임고문/1회), 박남선(518 구속자 동지회장/1회), 김범태(광주시 부패방지센터 본부장/1회)
MBN	황태순(정치평론가/18회), 송국건(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10회), 차명진(전 새누리당 의원/3회), 차재원(부산가톨릭대 교수/8회), 박용진(새정권 전 대변인/4회), <u>고영신(한양대 특임교수/8회)</u> , <u>민영삼(사회통합 전략연구원장/9회)</u> , 전개완(대한민국지식중심 대표/4회), 박상병(인하대 초빙교수/6회), 양문석(미디어스 논설위원/7회), 김광덕(데일리한국뉴스본부장/3회), <u>서양호(두문정치전략연구소 실장/7회)</u> , 황장수(미래경영연구소장/3회), 이철희(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1회), <u>이현중(문화일보 논설위원/1회)</u>
JTBC	강지영(기자/20회), 김정하(기자/20회), 오대영(기자/20회), 유상욱(기자/20회), 임소라(기자/20회), 조민진(기자/1회), 임진택(기자/1회),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1회)

* 굵은 고딕체에 밑줄 친 사람들은 여러 종편 채널의 시사토크쇼에 중복 출연하는 경우.

JTBC는 프로그램 특성상 정치부 소속 기자들이 매회 모두 출연한다. 종편 3사는 TV조선-채널A-MBN 순으로 출연자 수가 많은데 이는 현재 각 채널의 물적, 인적 토대의 차이를 보여 주는 것일 수도 있다. 종편 3사 대표 출연자와 중복 출연자의 특징과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분석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고영신, 민영삼, 여상원, 장성호, 이진곤, 이현중, 이상휘 등의 출연자들은 여러 채널에 중복 출연하면서 토론을 주도하는 인물군에 속한다. 여러 언론단체 보고서들이 지적했듯이 종편 3사의 정치 매개 엘리트들은 대부분 보수 우파 성향의 인사들이나 한국 정치 구도에서 반노무현-반문재인 성향의 친안철수 및 보수적인 호남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중도/보수 인물들¹¹⁾이 주를 이룬다. JTBC를 제외한 종편 3사의 경우 특정한 사안에 대한 객관적 사실이나 지표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거나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소수의 출연자를 제외하면 90% 이상의 출연자들이 극우, 보수, 중도보수의 성향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성향은 다음에서 분석되는 특정 대상에 대한 감정과 태도, 주요 발화들에 반영된다.

3) 대상에 대한 감정과 태도

(1)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진행자	출연자	응호/지지/보호/격려 대상	비난/조롱/혐오/편파/적대 대상
장성민		박근혜, 국정원, 새누리당, 김종인(친노 정치 폐단 척결 발언에 대해), 박근혜(법안 통과 국민 서명 운동에 대해), 이승만	문재인, 더민주당, 김정은, 북한, 이목희(더민주당 의원), 더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김상곤(더민주당 혁신위원장), 친노, 국회(의원), 김병관(더민주당 영입 인사), 정부/군(북한을 방치하는 것에 대해), 친노, 김종인, 새누리당 계파 싸움
	고영신	김종인(친노 세력 정리)	문재인, 김병관, 더민주당, 정청래, 김종인, 친노, 오세훈, 최재성, 김상곤, 안철수, 이해찬, 김홍걸
	이중훈	안철수	더민주당, 이목희, 친노, 문재인, 김홍걸, 김종인
	이상휘		문재인, 더민주당, 김병관
	민영삼	김대중, 이희호, 조경태, 국민의당, 박근혜	친노, 김문수, 김종인, 진성준(더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문재인, 김상곤, 정청래
	장제원	임성기(한미약품 회장)	김병관
	박휘락		진보세력,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신인균	군, 박근혜	기상청, 정부/군/국민(북한의 상황에 대해 오판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한), 문재인

11) 반노, 반문, 친안, 친보수 호남 정치인 성향의 출연자로는 고영신, 민영삼, 김근식, 박상병, 이중훈, 윤태근 등이 꼽힌다.

진행자	출연자	응호/지지/보호/격려 대상	비난/조롱/혐오/편파/적대 대상
	김흥광		북한
	송대성		북한
	전옥현		북한, 군(대북 확성기 방송 내용이 강하지 않음에 대해),
	강명도	박근혜	
	송영선		정부/군(북한 도발에 대한 평상시 준비 부족과 미온적 대응에 대해)
	김철우		북한, 김정은
	여상원		더민주당, 친노
	김태현		더민주당, 친노
	김경재	박정희, 김대중, 안철수 신당, 이승만	김정은, 정치권, 문재인, 진보세력, 표창원
	이규택		정의화
	박태우	김종인(친노 친문 세력 압박에 대해), 김대중, 이승만	문재인, 친노, 안철수, 박영선, 김종인
	장성호	조경태(더민주당을 탈당한 것에 대해)	문재인, 친노
	여상원		더민주당 잔류 선언 의원과 당원, 김종인, 윤여준, 박영선
	이진곤		김종인
	서양호		새누리당 공천 싸움

(2) 채널A <래도난마>

진행자	출연자	응호/지지/보호/격려 대상	비난/조롱/혐오/편파/적대 대상
이은우		조경태, SK(선경그룹), 최종건 회장	문재인, 더민주당 인재 영입, 김종인, 정청래, 심상정, 김무성, 한명숙
	윤영걸	김관영(전 더민주당 의원)	문재인, 이수혁, 새누리당, 김종인, 김홍걸
	한화갑	안철수	더민주당
	송영선		김정은, 정부/군
	배병휴	김종필, 이완구	문재인, 노무현, 더민주당, 정청래, 김종인
	이진곤	김종필, 조경태	전두환, 김종인, 문재인, 김상곤
	최진녕		전두환, 친노,
	박상학		정부(대북 전단 살포를 저지)
	이현종	조경태	더민주당 인재 영입, 새누리당, 조국, 문재인, 친노, 심상정, 정동영, 정청래, 김종인, 더민주당
	이상휘		새누리당

진행자	출연자	응호/지지/보호/격려 대상	비난/조롱/혐오/편하/적대 대상
	여상원	안철수	정청래, 진성준, 김종인, 친노
	장성호		문재인, 더민주당, 친노, 김종인
	조수진		김종인
	이남희	조경태, 안철수, 이완구	정청래
	김성욱	조경태	김무성, 김종인
	이영작	박근혜	
	배종찬		김상곤, 더민주당,
	신은숙	이완구	김종인, 한명숙, 더민주당

(3) MBN 〈뉴스와이드〉

진행자	출연자	응호/지지/보호/격려 대상	비난/조롱/혐오/편하/적대 대상
송지현			현직의원들, 문재인, 더민주당
	차명진	안철수, 김한길, 김무성	안철수, 김홍걸, 문재인
	황태순	김한길, 원유철, 양향자	현직의원들, 안철수, 안철수 측근, 김종인, 윤여준, 김무성
	박용진	김홍걸	현직의원들
	고영신	정부/군	더민주당, 안철수(신당)/국민의당, 문재인, 김종인, 윤여준, 박영선
	전계완		안철수, 야권, 김한길, 천정배
	차재원		안철수, 천정배,
	민영삼	안철수, 김홍걸, 김대중	정의화, 이목희, 문재인, 더민주당, 문재인
	박상병	안철수	이준식(교육부총리), 김종인, 김성곤
	송국건		안철수
	양문석	문재인	한상진, 국민의당, 김무성
	서양호	김한길, 문재인	한상진, 천정배, 문재인, 김성곤, 친박
	황장수	안철수	안철수

(4) JTBC 〈5시 정치부회의〉

진행자	출연자	응호/지지/보호/격려 대상	비난/조롱/혐오/편하/적대 대상
이상복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이준식(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은혜(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주형환(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진행자	출연자	옹호/지지/보호/격려 대상	비난/조롱/혐오/평화/적대 대상
			정치권 전체, 박근혜 대통령,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정부+교육청, 새누리당, 통일부
	강지영		최경환 경제부총리, 새누리당, 정부+교육청,
	오대영		반기문, 박근혜 대통령, 정부, 윤여준, 새누리당, 황교안 총리, 새누리당, 진박 인사들
	유상욱		반기문, 일본, 박근혜, 이준석(새누리당 예비후보), 황우여 교육부 장관
	임소라		황우여 교육부 장관, 새누리당 핵무장 주장자(원유철, 김정훈 등), 정부, 윤병세, 박근혜 대통령, 유일호 경제 부총리,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황교안 총리, 통일부
	김정하		윤여준, 새누리/더민주 양당, 김무성, 조경태, 진박 인사들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채널A <쾌도난마>, MBN <뉴스와이드>의 진행자와 출연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 새누리당,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승만, 안철수, 김대중, 이희호, 조경태, 국민의당, 군대를 옹호·지지·보호·격려한다. 보수 우파 성향의 출연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류라 분류되는 친노무현/친문재인 그룹의 당내 패권을 해체하겠다고 나선 김종인 위원장을 격려하고 칭찬한다. 동시에 친노 패권의 해체에 머뭇거리거나 후퇴하는 입장을 보이면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비난과 조롱의 목소리들이 집중된다. 친노 패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인사들을 옹호하고 지지를 보낸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찬양의 태도도 강력하게 드러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친노, 친문, 북한, 더불어민주당에 새로 입당한 인사들, 진보세력, 새누리당의 당선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여권 내부 인사들에 대한 비난과 조롱, 혐오와 적대감이 분출된다. 북한에 대해 보다 강력한 응징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군도 비판의 대상이 되곤 한다. 문재인, 정청래, 한명숙, 김홍걸, 이수혁, 김상곤, 진성준, 이목희 등 더불어민주당의 인사들이 가장 적대적인 비난의 대상이 된다. 또, 더불어민주당에 잔류하거나 탈당을 했지만 더 강력하게 더불어민주당에 맞서지 못하는 정치인들을 비난하고 더 확실하게 더불어민주당과 싸워야 한다고 주문한다.

TV조선의 진행자인 장성민은 발언의 양도 많지만 출연자들보다 더 노골적으로 자신의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낸다. 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더민주당 의원들 특히 친노무현, 친문재인 그룹으로 분류되는 정치인들이 비난과 조롱, 혐오와 적대적 대상이 되고 있다. 고

영신, 이종훈, 민영삼, 이상휘, 김경재, 박태우, 장성호, 여상원과 같은 대부분의 출연자들 또한 이 같은 경향을 여실히 드러낸다. 북한 관련 이슈를 다루는 김홍광, 송대성, 전옥현, 송영선, 김철우 등은 국내 정치 이슈보다 북한과 김정은에 대한 비판을 주도한다.

반면, 장성민은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 새누리당, 친노 세력을 비판하며 맞서는 정치인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옹호, 지지, 보호, 격려하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종훈, 민영삼, 김경재, 박태우, 장성호도 더불어민주당과 대립 상태에 있는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에 우호적인 태도를 드러내거나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보호나 옹호의 입장들을 대변한다.

채널A의 진행자 이은우와 출연자들 또한 TV조선과 그 양상이 다르지 않다. 이은우, 윤영걸, 배병휴, 이진곤, 이현중, 여상원, 장성호, 배종찬 등 대부분의 출연자들은 문재인, 정청래, 한명숙, 김상곤, 조국, 진성준 등 ‘친노’라고 규정되는 정치인들에 대해 가장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탈당자나 새누리당 합류자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들을 표현한다. MBN의 진행자 송지현을 비롯해 차명진, 황태순, 고영신, 민영삼, 박상병, 서양호 등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출연자들이다. MBN에 출연하는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용진이나 야당 추천 방송통신위원이었던 양문석은 더불어민주당과 소속 정치인들에 대한 지지와 우호적인 태도들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와 달리 JTBC <5시 정치부회의>는 대통령, 총리, 정부 부처 장관이나 부처, 교육청 등 정부의 정책적 오류나 문제들을 비판하거나 정치권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정당이나 정치인들을 균형성 있게 비판하는 모습에서 다른 채널 3사의 시사토크쇼와 차이를 보여 준다. JTBC의 기자들은 특정 인물이나 정당을 집중적으로 비난하거나 적대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JTBC의 기자들은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부처, 공적 영역의 기관이나 인물들의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문제시되는 정책 및 의사결정에 대해 충분한 취재와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평가하고 비판함으로써 다른 종편 3사의 시사토크 프로그램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 준다. 이 같은 모습은 종편 내부에서 저널리즘의 기본적인 규범과 윤리를 자각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기자 집단과 종편 외부의 종편 매개 엘리트들이 드러내고 있는 가장 극명한 차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4) 금· 부정적 표현과 규정적 발화를 통한 대상의 형상화

종편 3사의 출연자들의 평론과 토론들을 종합하고 서로 연결하다 보면 거의 동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극도의 반복, 반친노, 반문재인, 반더불어민주당의 언어들 이 주를 이루고 더불어민주당에 맞서는 정치인이나 집단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이 같은 대

상들을 향한 강력한 적대감과 비난, 조롱과 폄하의 발언들이 쏟아지고 심각한 인격 모독에 가까운 표현들이 어떠한 정제 장치도 없이 그대로 전달된다. 반면, 대통령과 현 권력층,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이나 문제 제기는 극히 최소화됨과 동시에 이들을 보호, 옹호하려는 토론들이 주를 이룬다. 대통령이나 정부,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적 발화들은 JTBC의 〈5시 정치부 회의〉에서 주로 발견된다. 진행자나 출연자들의 발화들이 만들어 내는 대상 형상화의 전형적인 사례들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1)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형상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식물과 동물에 비유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그동안 여러 문제로 지적됐던 게 **국회와 소통을 하고 국회의원들과 자주 접촉을 해서 설득하는** 게 미진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이 부족한데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저런 표현을 써서 비판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나……**”(JTBC, 유상욱)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5세에서 29세 청년층 실업률은 9.2%인데요 … 경제 상황을 진단하는 데 한계를 보인 박 대통령, 그렇다고 **해법을 제대로 제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어 경제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며 **야당만 비난했습니다.**”(JTBC, 임소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년 동안 이렇다 할 업적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는 **국민과의 절대 소통 부족입니다. 언론과의 절대 소통 부재입니다.** 다른 하나는 **국정에 대한 리더십 부재입니다.**”(TV조선, 장성민)

“박근혜 정부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외교, 통일, 국방, 보훈 분야가 잘 됐다고 판단해선지 성과집까지 냈습니다. 북핵문제의 실제적인 진전 모색을 위한 **국제연대를 강화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 4차 핵실험 했고요, **애매모호한 외교를 통해서** 한중일, 또 미국 사이에서 균형적인 외교를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 올해 이 책을 낸다면 어떻게 기술하지는 의문입니다.”(JTBC, 오대영)

JTBC는 박근혜 대통령과 장관 및 정부 부처의 정책적 오류나 부적절한 행위 등 다양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비판을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 장관과 부처의 무능력과 무책임, 대통령과 장관 간의 상명하복 관계와 같은 여러 문제들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반면에 다른 종편 3사 시사토크쇼는 대통령이나 정부와 관련된 이슈들을 잘 다루지 않는다. 즉, 말하지 않고 보이지 않게 함으로써 문제시하지 않는 효과를 가져 온다는 점에서 또 다른 정치적 편향성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2) 새누리당과 소속 정치인에 대한 형상화

우선 긍정적 형상화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보자.

“(핵무장을 주장하는 원유철 원내대표를 두고) 집권당의 원내대표까지 되시는 분이 **육을 먹으면서까지 총대를 땀다** 생각합니다.”(MBN, 황태순)

“(새누리당에 입당한 조경태 의원을 두고) 조경태 의원이 지역에서 브랜드가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당과는 무관하게 굉장히 어렵게 살았고, 아버지가 지계꾼을 했고 어려운 과정에서 역경을 극복하고 중견 정치인이 된, 이 과정들이 **좀 감동적이지 않습니까?**”(채널 A, 이은우)

“조경태 의원이 지역에 가면 어르신들이 경태야, 경태야 그래요. 그만큼 **지역에 친화적입니다.**”(채널A, 이현중)

“조경태 의원이 원래 친노하고는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결정적으로 틀어진 것은 통진당 문제입니다. 이석기 통진당 중복 문제가 불거지면서 조경태 의원이 맹비난을 했었죠. 그런데 민주당이 이 문제에 소극적으로 나갔고요. 그러다보니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면서 **친노 중복은 오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채널A, 김성욱)

“김무성 대표 이번에 (새 인물들을) 영입한 건 현실 조건에서는 잘했다. 밑에서부터 공천이기 때문에 실제 내리 쏘는 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종편 스타들인데 수많은 논객 속에서 이미 검증이 됐어요.**”(MBN, 차명진)

새누리당이나 소속 정치인들에 대한 긍정적 형상화는 주로 대북 문제에서 강경한 대결 정책을 선호하거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거나 가장 강력하게 대립하는 인물, 종편과 같은 방송 채널을 통해 검증된 인사들을 영입하는 경우에 모아진다.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해) 자기가 몸담고 있는 대통령, 집권당이 국정을 좀 잘해 보겠다 하면 거기 좀 도와주고 협력하고 일조하고 국민의 안심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할 때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TV조선, 이규택)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관계 설정이 당 대표와 사무총장 아니었습니까? 김무성 대표가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하고, 전략 공천 없다 그랬다가 영입했다, 아니다 그랬다가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 보이는데요.”(MBN, 황태순)

“**진박을 자처하는** 분들은 지금까지는 약간 열세였다면 최경환 의원 방문을 기점으로 모멘텀을 삼고 싶어 할 것입니다. 최경환 의원이 다녀간 다음에 과거에는 대통령이랑 찍은 사진을 걸어 뒀다면 **이제는 최경환이랑 찍은 사진이 명함이든 어디든 등장하는 것이 아니냐** 싶은 상황입니다.”(JTBC, 오대영)

종편 3사 시사토크쇼의 새누리당이나 소속 정치인들에 대한 부정적 형상화의 빈도나 양은 그리 많지 않다. 있다 하더라도 김무성 대표나 관심 인물들의 언행을 둘러싼 논평이나 대통령과 정부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새누리당의 모습에 대해 질책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JTBC에서는 ‘친박’, ‘비박’, ‘진박’과 같은 새누리당의 계파 논란을 부정적으로 의미화하는 논평들을 자주 볼 수 있다.

(3) 더불어민주당과 소속 정치인에 대한 형상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긍정적인 언어들로 형상화되는 경우는 극히 소수이기는 하지만 야당 성향의 출연자의 발언이거나 더불어민주당의 주류 세력에 맞서는 사람에 대한 발언에 해당한다.

“(문재인 대표의 인사 영입에 대해) **영입의 총감독으로서 드라마를 아주 잘 쓰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김병관, 양향자, 김종인 수석까지 **흠뻐 날리신 것** 같습니다.”(MBN, 서양호)

“대표되고 나서 **가장 잘한 정치다**. 제주도 저 밀바닥에서 태풍의 눈이 올라오는데, 태풍이 수도권권을 찌르고 가듯이 **훈풍이 태풍의 눈으로 상륙하고 있는 과정이다**. **국민의당이나 새**

누리당이나 청와대를 찌를 수 있는 삼지창을 한 사람이 들고 있는 것과 같다.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함으로써 이 삼지창을 든 것과 같다.”(MBN, 양문석)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하는 서양호와 양문석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TV조선의 고영신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문제가 되었던 비리, 막말, 갑질 하는 친노 세력들을 쳐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김종인 위원장의 영입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즉, 고영신은 더불어민주당의 친노 패권을 정리하는 역할을 김종인 위원장이 한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이같은 극히 소수의 긍정적 형상화를 제외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소속 정치인들은 극도의 불신과 반감, 비난과 적대의 대상으로 형상화된다.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안보 무능 실패 얘기하는데 그거 비판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지금 북한 핵이 어디서 나왔어요? DJ 햇볕정책에서 종자돈 주고 말이지 노무현 대통령은 핵은 북의 자위용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채널A, 배병휴)

“(안철수 의원의 탈당을 두고) 결국 결혼한지 1년 9개월 만에 이혼한 것인데, 한마디로 친노 패권주의가 원인이지 않습니까?”(채널A, 최진녕)

“더불어민주당의 친노 핵심 세력의 머릿속에는 항상 그게 있는 것이죠. 나는 절대선이다. 내가 하는 길은 항상 옳아. 내가 하는 일은 항상 옳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조금 뭔가 문제가 되더라도 목적이 맞는 건데 이걸 다 덮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의식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것이죠.” (TV조선, 김태현) “친노들은 자기들한테 도움 주는 사람에 대해서 무한적인 내를 베풀는다. 그렇지만 자기네 반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요만한 것만 있어도 강력히 반대하는 모습 보여 주고 있는 것이죠”(채널A, 이현중)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악평을 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렇게 인상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표 아무개라든가, 누가 나왔다 또 취소한 사람이라든가, 문재인 대표 쪽에서 영입한 사람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신선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TV조선, 김경재)

“친노 패권이 왜 없습니까? 막말하고 비리하고 갑질 하는 그 의원들, 정청래, 김경협, 윤후

덕, 신기남, 노영래 의원. 처벌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하는 게 친노 패권 아니고 뭘니까? 김상곤은 친노 특전사예요, 특전사”(TV조선, 민영삼)

“열린우리당을 만들어서 5년 만에 공중 분해시켰어요. 정권도 빼앗겼어요. 자기네들이 만든 정당 잃어버리고 탈당했던 정당 다시 되돌아와서 등지를 틀었어요……당을 끌고 나갈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10번 선거에서 10번 다 전패하는 패배 전문당으로 갑니다.”(TV조선, 장성민)

“(김종인 비대위 대표에 대해) 전두환은 김종인은 내가 데려다가 국보위원 시켰고,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잘하더라고 말했다. 원래 김종인 위원장이 굉장히 고집이 많은 분으로 아는데, 국보위 당시, 이때는 전두환 대통령 말을 고분고분 잘 들었나 보죠?”(채널A, 이은우)

“(김대중의 3남 김홍걸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것을 두고 김대중의 옥중서신을 언급하며) 거기에 홍걸 씨에 대해서 쓴 게 있습니다. 이웃과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 너의 단점이다. 그것으로 볼 때 사교성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정치하고 안 맞다는 거죠…나중에 판결문을 보면 판사가 세상물정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써놨어요. 김홍걸 씨가 고대 불문과에 83년에 입학했는데 11년 만에 졸업합니다. 그리고 미국 가서 남가주대를 갔는데, 석사 과정은 남들은 2년 하는데, 7년을 해요.”(채널A, 윤영걸)

“문재인 대표가 아직까지도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 묘소에 참배를 안했죠. 그래 갖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감히 된다고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삽니까? 전국의 아버지를 예우하지 않고”(TV조선, 김경재)

JTBC를 제외한 종편 3사의 대부분의 출연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소속 정치인들에게 극단적인 반감과 적대심을 표출한다. 종편 3사의 시사토크쇼가 매일 다루는 이슈도 그렇고 쏟아내는 비판적 발화들이 집중되는 대상이 바로 더불어민주당과 소속 정치인들이다. ‘친노 패권’, ‘친노 특전사’, ‘뿌리 없는 정당’, ‘패배 전문당’, ‘막발, 비리, 갑질 하는 친노’, ‘독선’, ‘무책임’, ‘무능력’, ‘양지만 꿈꾸는 사람들’, ‘상왕정치’, ‘조랑말 같은 사람들을 영입하는 정당’, ‘사업 망하고 찾아온 만이들’, ‘약속을 지키지 않음’, ‘배타적’, ‘사회주의 노선’, ‘난파 정당’, ‘투쟁 마인드’, ‘쌈꾼 마인드’, ‘노숙 정치’, ‘친노 집결 선대위’, ‘(초대 대통령에 대한) 난도질’과 같은 규정적 발화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소속 정치인 특히 문재인 대표를 부정적

으로 형상화하는 대표적인 경우이며, 이같은 부정적 형상화의 총량은 다른 정치 집단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4) 국민의당과 소속 정치인들에 대한 형상화

“안철수 약발이 떨어진다고 한다. 그렇지만 **안철수 의원이 개인이 나가서 이름도 없는 안철수당을 해서 20%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MBN, 차명진)

“김한길 의원은 **원로로서 설거지**를 하고 계십니다. 박주선당 천정배당 박준형 전남지사당 안철수당 이런 것을 통합을 하겠다. **자기의 역할을 설정한 것은 상당히 잘했다. 늦었지만 잘하시는 것 같다.**”(MBN, 차명진)

“안철수 의원이 말을 바꿨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꾸 말이 바뀌었다 그러는데 제가 지금 제 기억으로는 **안철수 대표가 부패와의 전쟁, 그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기소만 돼도 공천은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입당은 이당을 위해서 도와줄 사람들을 많이 끌어**안는 겁니다. **큰 바다처럼 세를 넓혀 나가는 겁니다.**”(MBN, 박상병)

“**지지율이 꺾이지 않을 것이다. 안철수 의원이 실수 안 하고 아는 길도 물어서 가고 돌다리도 두드려서 가는 그런 리더십** 보여 주면 또 **나 혼자 가지 않고 더불어 하는 모습** 보여주면 된다.”(채널A, 한화갑)

국민의당과 소속 정치인들의 긍정적 형상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는 안철수 대표나 이에 합류하는 과거 더불어민주당 소속 호남 정치인들의 선택을 옹호하거나 더불어민주당과 명확히 대립하는 모습을 지지하면서 나타난다.

“(안철수 의원 측근들에 대해) 제가 최측근 중에 측근을 우연히 만난 적이 있는데 받은 느낌이 **아무 것도 모르는 녀석이 오만방자**하기는, 어느 정도 오만방자하냐면 **세상을 갖다가 다 아래로 보고 있더라고**”(MBN, 황태순)

“(한상진 영입위원장의 이승만 국부 발언 후) **이승만 국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국부**

라는 논리를 가지고 뚫고 들어가야죠. 그것을 반대하는 논리로 치니깐 뒤로 빠진다? 정치
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TV조선, 장성민)

“바람이 불고 물이 들어왔을 때 배를 띄워야 합니다. 그런데 배를 안철수 의원이 띄우지를
못하고 **진창에 박힌 거**예요. 정말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 주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못 보여 주고 **당 내 헤게모니 싸움에 매몰돼 버린 것**이 아닌가”(TV조선, 고영신)

국민의당과 소속 정치인들에 대한 부정적 형상화는 당 정체성의 모호함, 당내 세력
싸움, 안철수 대표의 우유부단함과 정치적 콘텐츠의 부재, 그리고 보수적인 국가 정체성의
부족을 비판하는 부분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이 외에 TV조선의 경우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
통령에 대한 지속적인 옹호와 신화화를 이끌어 내는 긍정적 형상화와 동시에 북한, 특히 김
정은에 대한 부정적 형상화를 주도하고 있는 점도 이 분석에서 매우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저도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에 반대를 해서 당시 경무대, 오늘의 청와대 앞에서 데모한 사
람입니다만, 그 양반이 **수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그가 이 나라를 건국했고 그가 이 나라를
공산주의에서 6·25 때 이 나라를 지켰고, 그리고 지킬 때 그 양반의 유창한 영어와 그 배
경에 하지도 않던 미군 장관들 다 주무르면서 …**”(TV조선, 김경재)

“이 나라의 권위와 위엄을 지키고 … 그것만으로도 이승만은 **광화문 앞에 건국의 아버지**로
딱 서야 하는 겁니다.”(TV조선, 김경재)

“이승만 대통령이 만약 하버드 프린스턴 등 **세계적인 석학들과 겨루는 국제정세를 훤히 꿰
는** 그런 어떤 문물에 밝아서 **미국의 월슨 대통령까지 우지좌지**하면서 서신을 주고받는 나
라 없는 지도자가 독립운동할 때부터 말입니다. 그렇게 한미관계 맺어서 **미국 쪽에 줄서서
그 동맹의 힘으로 자유 우방 국가에 편속**해서 양극 시대에, 그제 한미동맹의 틀 속에 들어
가지 않고 만일 김두봉이나 김일성이나 또 그 밖에 사회주의 정권 초창기 이념들에 매몰되
어 있는 김일성이랑 똑같이 **사회주의 공산국가** 동맹관계 맺어서 **공산국가** 됐으면 이미
북한보다 비참한 …”(TV조선, 장성민)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심은 위대한 대한민국의 선각자**입니다. 그 토대 위
에서 **오늘날 번영을** 일궈왔기 때문에 …”(TV조선, 박태우)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에서는 유독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한 옹호와 변호, 신화화를 주도하는 토론이 많이 발견된다. 이 같은 흐름은 이승만 국부론이나 박정희 묘소 참배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과 맞물려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와 함께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는 다른 시사토크쇼와 달리 북한 관련 이슈에 매우 많은 비중을 두며, 김정은의 사생활이나 확인되지 않는 추측성 발언들을 통해 부정적 형상화를 주도한다.

“김정은이 이렇게 똥똥하고 살찐 것은 스위스에서 가져온 치즈를 먹고 또 지금도 즐기느라고”(TV조선, 장성민)

“북한이 저지른 이 수소폭탄은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그 모든 치욕 중에서 가장 높은 형태의 치욕이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TV조선, 김홍광)

“인제는 되지도 않는 비핵화, 비핵화보다도 … 1992년에 철수했던 핵우산을 갖다가 빨리 갖다 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balance of terror가 안됩니다. 소위 그 공포의 균형이 안 돼요.”(TV조선, 송대성)

“대북 확성기를 총력적으로 해서 북한의 군단 사단에 이걸 투입하게 되면 북한군은 그 3·8선 근처에 있는 최전병들이 생각을 바꾸게 되고, 그들이 자신의 북한을 의심하게 되고, 자신의 체제를 의심하게 되고, 김정은이가 여태까지 거짓말해서 우리를 노예로 삼고 있구나라고 …”(TV조선, 장성민)

이상의 분석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TV조선과 채널A, MBN의 시사토크쇼는 다루는 주제가 정치권과 선거에 집중되어 있고, 출연자들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옹호와 변호, 신화화의 발화들을 주도하면서 극도의 대북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박근혜와 현 집권층의 문제에 대한 침묵과 부분적 옹호 양상들을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공격이 집중되고 특히 친노, 문재인 세력에 대한 극단적인 적대심이 드러난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경쟁하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형상화가 주로 이루어지고, 친노 중심 더불어민주당과 합리적인 중도 국민의당이라는 명확한 대립 구도를 만들어내는데 일조하고 있다. 반면 JTBC는 다루는 이슈의 폭이 넓고 특정한 정치적 편향성이나 출연자들의 개인감정의 노출보다는 균형감 있게 다양한 문제들을 진단하고 평론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5. 결론 및 연구의 한계점

중편의 시사토크쇼는 정치를 철저히 싸움판의 볼거리로 만들고 이를 시청자에게 판매하는 전형적인 비즈니스 상품이다. 시사토크쇼는 대량생산에 적합하다. 스튜디오, 진행자, 고정 출연자와 재빨리 섭외된 '중편 스타일' 출연자, 그리고 이들 간에 오고 갈 이슈라는 기본 요소들만 갖추어 놓으면 오랜 기획과 준비, 리허설과 사전 평가 작업 없이 곧바로 시청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 재빨리 만들어지고 쏟아지는 말 속에서 정치는 하나의 게임물이 되고 시청자들은 게임화된 정치를 소비하는 데 익숙해진다. 중편 채널들은 정치인이나 정당, 서로 대비되는 집단들 간의 갈등과 대립 상황을 파고들어 마치 경기 중계를 하듯 중계자나 해설자들을 배치한다. 선명하게 구분된 진영과 세력, 명확하게 설정된 경기의 진행 상황, 이 경기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고 경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흥미로운 점들을 부각시키며 이를 둘러싸고 토론이 가속화된다. 거칠고 큰 목소리, 집어 삼킬 듯이 물고 늘어지는 공격성, 어떻게 해서든 보호하고 지지해야 할 대상을 향한 충성스러운 수사의 전개, 선정적이고 자극적이며 표피적인 단서들의 나열, 찌라시 저널리즘에 가까운 카더라식 발언 등이 시사토크쇼를 지배한다. 출연자들은 자신을 부각시킬 수 있는 수사 스타일이나 제스처, 강경 발언을 추구한다. 평론가들의 지나친 쇼맨십이나 자기 자랑식 평론, 함께 출연하는 다른 평론가의 진단에 대해 계속 만지를 걸거나 자기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강요하는 듯한 태도, 평론가들끼리 장난치거나 욕박지르듯이 주고받는 말들과 형님, 선배 등 사적인 호칭으로 상대방을 지목하면서 출연자들끼리 장난치듯 주고받는 대화 등 중편 시사토크쇼는 노골적인 정치 쇼 비즈니스이다. 그리고 중편 스타일의 시사토크쇼는 지상과가 모방하고자 하는 제1순위 프로그램 포맷이 되었다.

중편의 시사토크쇼나 보도 프로그램들은 정치 매개 엘리트들의 무대이다. 정치 매개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입을 통해 대중들의 정치적 의식과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치-미디어-대중을 연결하는 결정적인 고리이다. 이 말은 곧 평론가 혹은 출연자로 불리는 정치 매개 엘리트들이 특정 정치 집단과 대중 사이에서 자신의 정치를 행하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 매개 엘리트들은 중편과 같은 미디어를 활용해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고 이를 발판으로 정치 세력이나 권력, 기업 등과 필요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평론가들은 자신이 활동할 수 있는 미디어를 찾고 이들에게 확실한 평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청률을 높이는 데 기여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평가받고자 한다. 또 높은 평가를 받는 평론가들은 이를 자신의 자본으로 내세워 여러 집단들과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중편의 정치 매개 엘리트들은 중편 스타일의 시사 프로그램이 필요로 하거나

요구하는 형식과 내용들에 대한 수용력이 크다. 과잉, 막말, 선정주의, 예능성, 편향성이라는 종편 스타일 시사 프로그램의 요소들을 정치 매개 엘리트들이 체화하고 구현해야 하는 것이다. 또 이들은 특정 성향의 정치 집단 중 어느 한 쪽에 철저히 복무해야 한다. 이것이 시사 프로그램의 내적 긴장성을 높임으로써 시청자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어떤 누군가를 위한 정치적 전사가 되어야 하며, 종편이라는 무대는 이 전사들의 팽팽한 전투를 위한 공간이 된다.

이 연구의 분석 시기였던 1월 한 달 동안 TV조선, 채널A, MBN 등 종편 3사는 한국 정치 영역에서 소위 ‘친노’라고 불리는 정치 집단에 대한 극단적인 반감과 적대적 언어들을 전사했다. 극히 소수의 정치 매개 엘리트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진행자와 평론가들이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는 양상이다. 마치 종편 3사 시사토크쇼가 더불어민주당, 특히 친노 그룹에 대한 전면전을 벌이는 느낌을 줄 정도이다. 과거 민주당 지지 성향을 가지고 있었거나 실제 민주당 의원이기도 했던 다수의 중도보수 인사들도 ‘친노 패권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대부분의 토론을 문제인, 더불어민주당, 친노 그룹 정치인들에 대한 공격으로 채웠다.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조롱과 폄하, 비난과 저주에 가까운 언어들 이 더불어민주당과 소속 정치인들에 대한 강렬한 부정적 형상화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긍정적, 부정적 형상화의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모든 발언들에 대한 녹취 기록들을 보면 비난의 강도는 더 세고, 범위는 더 넓다. 한국의 정치 매개 엘리트들이 왜 이렇게 극도의 반노무현, 반문재인, 반친노 감정과 태도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종편의 시사토크쇼가 이들을 통해 지금과 같은 정치 구도를 강화하는 이유에 대한 별도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종편의 전사들은 그들의 공과에 따라 정당이나 정치권에 영입되거나 정치권으로부터 배제되기도 한다. 2016년 1월 10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총선을 대비해 6명의 종편 출연자들을 영입했다. 이 중에서 전 삼성그룹 변호사였던 김태현 변호사는 종편 3사에 걸쳐 가장 많은 중복 출연 기록을 가진 인물이기도 하다. 이 영입 인사들은 종편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를 옹호하고 보호하는 평론들을 도맡아 하면서 여론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다. 종편과 지상파 등 방송에서 권력에 대한 충성심을 보일수록 그 권력 집단 내부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경우로서, 방송은 더욱 더 충성스러운 전사들의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보수 우파 성향의 출연자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진보 좌파적 성향이라고 구분되는 출연자들 또한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을 끊임없이 옹호하고 대변하며, 보호하고 정당화하려는 노력을 한다. 또 자신이 싫어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혹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정당과 경쟁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롱, 혐오, 폄하, 비난의 발화들을 내뿜는다. 이를 통해 보수 우파 진영뿐만 아니라 진보 좌파 진영에서도 자신들의 논리들을 선명하게 대변하는 출연자들에 주목하고, 이들에게 다양한 보상을 주는 거래 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더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에 출마한 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한 출연자는 철저하게 더민주당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토론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중편에서 활동 중인 정치 매개 엘리트들은 교수, 변호사, 평론가, 언론인, 보좌관 등 정치권 출신 인사, 여론조사나 사회조사 전문가 등 글과 말로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직업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중편 시사토크쇼의 정치 매개 엘리트들은 대부분이 극우와 보수 및 중도보수의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진보적 성향의 출연자를 발견하기는 매우 어렵다. 또 한편으로 장성민, 민영삼, 서양호와 같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등의 소위 '친노'라고 규정받는 대상들에 대한 극단적인 공격을 수행하는 구 야당 성향의 출연자들도 주목해야 한다. 이들은 보수와 진보라는 틀이 아닌 현 야당 주도 세력으로부터 받은 개인적 상처나 피해를 다시 되갚는 형태로 중편 시사토크쇼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보다 실질적인 감시와 견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편 시사토크쇼의 정치 매개 출연자들의 정치적 편향성은 텔레비전을 과잉되고 극단적인 전쟁의 무대로 구성한다. 저널리즘과 방송에 요구되는 합리적 규범과 윤리가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정치 매개 엘리트들에게 중편 시사토크쇼는 정치적으로는 확실한 정치적 진영의 구축자이자 지원자로서 활동하는 것과 함께 경제적으로는 매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통로가 된다. 또, 정치 매개 엘리트들의 개인 과거사로부터 형성된 특정 대상에 대한 적개심이나 반감, 선호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평론과 토론의 과정에서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반영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사실 중편 3사의 시사토크쇼는 보수 우파 정치집단과 권력의 전위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권력이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권력의 핵심부로 진입하기 위한 경쟁과 정치 게임을 벌이고 있다. 중편의 탄생 자체가 보수 정치 체제의 지속적인 재생산을 위한 정치적 목적을 포함하고 있었고, 중편이라는 무대는 보수 우파 정치 매개 엘리트들이 더 선명하게 자기 색을 드러내고 검증받는 곳이다. 방송 채널이 많아짐에 따라 드라마와 오락 프로그램의 분산 효과는 나타나는 반면,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의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 말은 곧 지상파 3사와 중편 3사를 통해 분배되는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이 만들어 내는 과잉화된 보수 여론의 집중화 효과가 상상 이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편 스타일의 극단적 정치시사 토크쇼와 같은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중편의 변화 혹

은 개혁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종편의 저널리즘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 분석과 비판적 보고서들이 아무리 많이 만들어진다 해도 종편은 이것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것이다. 특히 총선이나 대선과 같은 정치 과정에서 종편은 그야말로 지금의 정치, 경제, 언론 체제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비판과 무관하게 자신들의 정치 매개 엘리트들을 내세워 보수 우파 정치집단과 권력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주목했듯이 종편 저널리즘의 중심 무대에 있는 정치 매개 엘리트들에 감시와 비판 활동은 어느 정도 효과를 내올지도 모른다. 개인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판과 해명에 대한 요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치 매개 엘리트들의 종편에서의 활동을 감시하고 비판하며 이들의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개선하려는 다양한 실천 방식들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다른 한편으로 2016년 4월 13일에 치러진 총선 결과는 이 연구를 포함한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을 둘러싼 기존의 연구들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즉, 극도로 친정부, 친 새누리당, 친보수 우파의 미디어 지형(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되는) 속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전체 의석수가 더 많게 나타난 선거 결과는 미디어, 여론, 선거, 정치의 관계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미디어의 결정적인 영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 연구 또한 종편이 제조하는 일상의 여론과 정치적 의식이 극히 보수 우파 정치집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사람들의 투표 행위나 정치적 선택 행위와 종편의 관계를 분석하고 유의미한 답들을 찾는 후속 연구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종편의 정치 매개 엘리트들이 수행하는 텔레비전 정치와 이를 둘러싼 정치적 거래 관계들을 살펴보고자 했던 이 연구가 아직 제대로 진입하지 못한 종편 시사토크쇼와 정치 매개 엘리트 간의 정치, 경제적 교환과 거래 관계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현장 연구나 증거들의 수집, 정치 매개 엘리트들에 대한 직접적인 인터뷰 기반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 논문의 이론적 논의 부분은 매우 불충분하고 불완전하다. 정치 매개 엘리트라는 개념과 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논의들을 더 많이 검토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했다. 이 논문이 주목하고 있는 정치 매개 엘리트들의 정치적 거래나 텔레비전 정치에 대한 더 풍부한 이론적 논의가 뒷받침되지 못한 것은 이 연구의 큰 약점 중 하나이다.

참고 문헌

- 강찬호 (2013). 방송 정치평론의 문제점과 해법: 종편 시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관훈저널>, 128호, 249-258.
- 경향신문 (2013, 11, 17). 괴물이 된 종편... 개국 2년, 이대로 좋은가.
- 그린투데이 (2014, 7, 11). 지상파조차 따라하기 '종편의 시사토크' 왜 뜨나.
- 금희조·조재호 (2015). 종합편성채널 시사토크쇼 시청이 정치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 시청의 주 효과 및 정치 성향과의 상호작용 효과 검증. <방송학보>, 29권 3호, 5-35.
- 김서중 (2013). 신문의 방송 뉴스 진출을 위해 기획된 종편. 민주언론시민연합 (편), <종편 대해부: 종편 탄생의 비밀과 비리>.
- 김세은 (2014). 전장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한국언론학회 엮음,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은유들>, 186-227.
- 김재홍 (2002). 한국 정치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에 관한 사례 연구: 정치 평론과 선거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9집, 77-113.
- 류동협·홍성일 (2014). 종합편성채널 시사대담 프로그램의 차별화 전략과 그 효과: 부르디외의 저널리즘 장 이론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2013년 겨울호, 9-36.
- 민주언론시민연합 (2015, 3). 종편 시사토크쇼는 한마디로 막말쇼, 카더라쇼이다. <방송모니터보고서>.
- 박지영·김예란·손병우 (2014). 종편 시사토크쇼와 사담의 저널리즘: 왜도난마를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22권 2호, 5-63.
- 시사N (2012, 12, 1). 정치평론가, 누가 제일 잘 나갔지?.
- 시사N (2016, 2, 1). 살아남은 종편의 비밀 언덕은 선거.
- 원희영·윤석민 (2015). 종합편성채널의 보도 공정성에 관한 연구: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메인뉴스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9권 1호, 117-148.
- 이기형 (2014). 종편 저널리즘의 위상과 함의: 과잉된 정파적 저널리즘과 흥분하는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역할을 중심으로. <문화과학>, 104-128.
- 이기형 (2014). 종편 저널리즘의 위상과 함의. <종편의 문화 정치>, 2014 미디어콘텐츠포럼.
- 주간경향 (2014, 3, 18). 어르신들은 종편을 좋아해?. 1067호.
- 프레시안 (2015, 5, 11). 종편이 낳은 '동교동 좀비들'부터 물갈이하자.
- 한겨레21 (2015, 3, 18). 종편 패널의 고백 "괴물로 변한 나를 발견했다".
- 한겨레21 (2015, 3, 4). 종편이 낳은 괴물들의 거친 입, 독한 입, 쏠린 입.
- 홍성일 (2014). 보수적 방송저널리즘의 출현 혹은 페니 프레스의 텔레비전화. <종편의 문화 정치>, 2014 미디어콘텐츠포럼.
- 2016총선보도감시연대 (2016, 2). <모니터 주간 보고서>, 6호.
- MK뉴스 (2016, 1, 3). 종편 출범 5년차 지상파 독식 깨져.
- PD저널 (2016, 1, 25). 생존한 종편 '이런 성장' 괜찮습니까.

theimpeter.com (2016, 1, 11). 종편 채널들을 대거 새누리당이 영입한 이유는.

Goff, J. (2004). Right-Wing Influence in American Media, web.stanford.edu.

Parry, G. (1976). *Political Elites*.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투고일자: 2016. 2. 16 게재확정일자: 2016. 5. 26 최종수정일자: 2016. 5. 26

A Critical Review on the Comprehensive Cable TV Channels' Journalism

Focused on the TV Politics of Political Mediating Elites in Current Affairs Talk Show

Youngjoo Lee

Research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Comprehensive Cable TV Channels(CCCs) has been established as a political product around 5 years ago, and it's influence and position on the broadcasting field are keep increasing. CCC's stabilization is based on flooding the market with journalism. The repeating news and current affairs programs are appearing constantly in the afternoon which is CCC's primetime. The current affairs talk shows are a product of CCC's representative program type and it leads unique CCC style journalism. The guests of the current affairs talk show leading the program with critiques(comments) and discussions about political issu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how these guests of the current affairs talk shows conceptually positioned as political mediating elites and same time to explore the television political landscape through the representative current affairs talk shows from TV chosun, Channel A, MBN, JTBC which are present by these political elites. This study wants to find out about that television political effects from CCCs which exemplified into certain directions by these political mediating elites saying their political biases and expresses their feelings drastically that causes high ratings and brings people's attention. The guests who called political mediating elites in this study are mostly considered to be extreme rightist, conservatives, conservative-centrist and they have close relationship with certain political party or political group. The political mediating elites gain the popularities and have great influence on the public from performing the television politics through CCCs' current affairs talk shows and use that to make political exchange connections with political groups. Therefore this study wants to point out that CCCs' current affairs talk shows are situated in political rally, exchange connection, so current affairs talk shows are existing only for political battle field.

KEYWORDS CCC, Current Affairs Talk Show, Political Mediating Elites, TV politics